

# 돈사시설의 합리화 바닥 및 제분시설

연정웅 교수  
(연암축산원예전문대)

본고는 지난 7월 「축산시설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1. 바닥시설

돈사 바닥은 콘크리트평상과 슬랫상면으로 구분할 수 있고, 슬랫상면은 전면 슬랫상과 부분 슬랫상으로 분류된다. 콘크리트 상면은 재래식 수동제분에 의한 원시적인 형태로 일반 소규모 양돈 농가가 채택해 온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집약적 관리에 의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돈사면적이 커지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다.

양돈규모가 대형화 또는 계열화되고 생력관리를 위한 자동화 추세에 따라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만일 콘크리트상면 설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바닥을 단열 및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부분 슬랫을 설치할 때는 돈방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돼지의 배분습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가급적 슬랫위에 배설토록 유도해야 한다.

돼지의 배설습성은 다음과 같다.



- (1) 바닥면이 낮은 곳(슬랫 상면을 3~6cm 낮게 설치한다.)
- (2) 급수기 부근이나 습기가 많은 곳
- (3) 외적과 경계되는 구역(슬랫 설치부분의 칸막이는 옆 돈방 돼지와 서로 볼 수 있는 재료로 시공)
- (4) 잠자리에서 일어나 3m 이내에 배설한다.
- (5) 자기 영역확보를 위한 배설 등이다.

돈사의 바닥, 벽, 칸막이 시설은 그 재료나 설치방법에 따라〈표 1,2〉와 같이 청소 및 수세시간 그리고 수세수량에 차이가 있어 양돈 채산요소인 인건비, 오수처리비, 용수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므로 돈사 바닥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표 1〉 자재에 따른 청소 용이도 비교(용이도 평가 : 1점 = 최저 5점 = 최고)

원자재별	점수
돈방벽 :	
목재	1
벽돌	2
콘크리트	3
재생 플라스틱	4~5
합성	4~5
스텐레스	5
바닥재 :	
낡은 콘크리트	1
새로운 콘크리트	2
연질 플라스틱 코팅재	3~4
경질 플라스틱 코팅재	4
삼각형 금속 슬릿	4~5
와이어 메쉬	5

(Peter Roelofs, 1993)

〈표 2〉 돈방 형태에 따른 물 소비량과 청소시간의 비교

	부분 슬랫 돈방	전면 슬랫 돈방
분만 돈방 :		
물 소비량(리터/돈방)	122	114
청소 소요시간(분/돈방)	8.9	8.3
이유자돈방 :		
물 소비량	183	68
청소 소요시간	14.4	4.1
비육돈방 :		
물 소비량	301	186
청소 소요시간	21	12.2

(Peter Roelofs, 1993)

〈표 3〉 분만실 바닥재가 수유기간 중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바닥재 종류	A 모돈		B 모돈	
	콘크리트	플라스틱	콘크리트	플라스틱
복당 이유시 체중(kg)	50.3	63.3	55.2	60.8
이유자돈수(두)	8.4	9.2	8.2	8.8
두당 이유시 체중(kg)	6.0	6.9	6.7	7.0
자돈 폐사율(%)	14.4	6.3	16.2	11.2
모돈 사료섭취(kg/day)	5.8	5.7	6.6	6.6

(Wyane, 1988)

〈표 4〉 슬랫 상면이 육성비육돈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슬랫설치 비율(%)	시험 1		시험 2	
	0 유	27 무	100 무	0 무
공시두수(두)	192	192	192	192
일당증체(g)	589	556	556	563
사료요구율(F/G)	3.16	3.30	3.30	3.39
				3.49

(Madsen 등, 1976)

〈표 5〉 콘크리트 슬랫의 적당한 간격과 폭

종류	체중(kg)	슬랫폭(cm)	슬랫설치간격(cm)
자돈	25까지	6.3	1.5
육성돈	50까지	7.6	1.9
비육돈A	100까지	10.2	2.5
비육돈B	100까지	12.7	2.5
종돈	200까지	15.2	3.2

(Ensminger, 1972)

## 2. 제분시설

재래식 콘크리트 평상의 수동제분이나 반자동 스크레파식 제분방법은 시설 생력화에 밀려 감소 추세에 있고, 전자동화가 가능한 슬랫 하부에 피트(Pit)시설을 한 후 스크레파(Scraper)식, 넷트(Belt)식, 반 크리나(Barn cleaner, Flushing)식 그리고 슬러리(Slurry)식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1) 스크레파(Scraper)식

스크레파를 이용한 제분방법은 케이지(Cage)식 돈사에서도 별도 피트 시설없이 분을 긁어내 게 하기도 하지만, 주로 슬랫의 길이와 스크레파 삽날규격에 맞추어 피트를 설치하여 이용한다.

피트와 스크레파 삽날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피트 중앙에 75~100mm되는 분뇨분리용 PVC 파이프를 매설하여 분을 긁어내는 반대방향으로 경사지게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응용된다. 스크레파가 왕복할 때마다 스크레파에 부착된 원판에 의해 오수분리용 파이프속에 침전된 분을 제거해 줌으로서 분뇨분리 효율이 증대되며 돈분건조나 오수처리 부담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지만 스크레파를 비롯한 각종 감속기, 모타, 케이

블 등의 기계적 부식과 마모율이 커 수명이 짧고 더욱이 긁어 모아지지 않는 분의 산폐 등으로 발생되는 암모니아 가스를 비롯한 유해 가스에 의해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스크레파가 지나가는 피트 통로가 각 돈방과 통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돈방군(Room batch)별 면역환경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All-in All-out system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2) 네트벨트(Net belt)식

슬랫 밑에 나일론 망사나 기타 유사한 재질의 벨트를 설치하여 벨트위에 분(糞)만 떨어지게 하고 뇨(尿)나 물은 망사 사이로 흘러내려 피트 바닥의 요 통로로 흘러 나가게 하고 분이 쌓인 망사 벨트를 동력에 연결하여 회전시킴으로써 돈사밖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고안된 제분시설이다.

분뇨분리율(고액분리)이 95% 이상되는 특징이 있으나 벨트의 내구성이 불량한 단점이 있다. 소재 개발만 되면 국내 양돈 환경에 알맞는 시설이다. 작은 프라스틱 조각으로 망사처럼 엮은 벨트를 응용한 국내제품도 있다.

### (3) 반 크리나(Barn cleaner)식

콘크리트 평상이나 부분 슬랫상에 주로 응용하며 작은 도랑(Pit)을 경사지게 설치하여 물동이 또는 고압세척기 등으로 분뇨를 깊고 경사진 요통로 형태의 피트로 셋어 내리거나 슬랫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트에 저장시킨 후 일시에 돈사 끝쪽의 피트 출구를 열어줌으로써 분, 뇨, 물 등이 혼합된 상태로 자체증력과 자연경사에 따라 액비저장탱크로 이송하게 한 제분시설이다.

이 시설은 재래식이긴 하나 다소 생력화된 시설로서 무동력이므로 제분시 유지비가 없는 장점은 있지만 분, 물, 뇨가 혼합된 액비량의 증가로 분뇨처리에 부담이 증대되는 단점이 있다.

### (4) 슬러리(Slurry)식

슬랫밑에 피트를 설치하여 피트 깊이에 따라 일정기간(14~180일) 슬랫 밑으로 이송하도록 한 제분시설로서 반크리나와 비슷한 점이 있다.

피트의 깊이는 0.4~2.5m로 저장기간에 따라 다양하다. 피트의 깊이는 깊을수록 저장기간이 길어 제분관리가 생략되지만, 분뇨 산폐에 의해 발생되는 유해가스로 실내오염이 증대된다. 또한 피트에 오래 저장되어 산폐된 분뇨(液肥)는 고액분리기(예, Screw Press Separator)의 분리효율이 저하될 뿐 아니라 분리된 폐수는 오수처리(활성오니 처리, Activate Sludge Process)과정에서 과부하(過負荷)의 원인이 된다. 고액분리 과정없이 그대로 부숙(腐熟)시켜 초지나 밭에 살포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응용하면 유리하다.

분리된 폐수를 분발효건조시설에 살포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트의 깊이를 40~50cm로 낮게

〈표 6〉 피트(pit)의 깊이에 따른 분뇨 배출구의 적정한 크기

분뇨배출구의 직경(mm)	적정한 피트의 면적(평방M)	분뇨배출구로 부터 바닥의 최장길이(M)	주배출관의 경사도
200	10.2	6	5mm/M의 경사
250	15.2	9	
315	23.8	14	

하여 피트내 저장기간을 분뇨의 분해가 발생되기 전, 즉 2주이내에 분뇨저장탱크로 이송하고 피트 바닥이나 구석진 곳에 분이나 모래, 흙과 같은 침전물(Sludge)의 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면에 별도 배수로를 만들기도 하고 분뇨배출관의 크기도 피트의 면적과 길이에 따라 〈표 6〉에 맞추도록 한다.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주 배출관은 최소한 5mm/M의 경사가 되도록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